

An Analysis of What Korean Language Learners at a Japanese University Want to Learn in the Post-COVID-19 Era: A Preliminary Results of Survey on Year 2023 Students in Doshisha University

Park, Jong-hoo

Associate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First author, jopark@mail.doshisha.ac.jp

Asaba, Yuki

Professor, Doshis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yasaba@mail.doshisha.ac.jp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state of affairs in the motivations for learning Korean language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and interests in K-something (culture/food/drama et) in some prestigious private university in Kansai area, Japan in the post-COVID-19 era.

Methods A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April 2023 on all the 1st-year students who chose Korean language classes among others such as Chinese, French, and Germany at Doshisha University in Kyoto. The response rate was significantly high with 75.5 percentage, 954 out of 1264 students.

Conclusions The survey shows that the motivations for choosing Korean language as a second foreign language are not so much result-oriented such as future career and studying abroad as personal interests-driven. As the “2030 (MZ)” generations in Japan have generally strong interests in Korean food and popular culture as is the case with other countries, there is no exception to the case of Year 2023 students in Doshisha University. They prefer to improve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to reading and writing skills as most of them cease to learn Korean language once they earn enough credits for gradu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their goal for 1-2 years mandatory studies are rationally set Intermediate 1, equivalent to TOPIK II (Level 3). Accordingly, they argue that the Korean textbooks themselves and teaching methods should be fit with their goals, namely, learning daily conversations, rather than Korean language tailored for foreign learners.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a second foreign language at university, the post-COVID-19 era, motivations f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nterests in K-something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3.12.312.007

Received: Nov. 30. 2023 ; Reviewed: Dec. 10. 2023 ; Accepted: Dec. 15. 2023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www.kci.g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대학에서 초수외국어(初修外国語)로서의 한국어 과목 수강생의 현주소

- 일본의 동지사대학(同志社大学)* 한국어** 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 -***

박종후·아사바 유키(浅羽祐樹)

목 차

1.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3. 조사 결과
 - 3.1 수강 동기
 - 3.2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도
 - 3.3 한국 유학에 대한 희망 여부
 - 3.4 향상시키고 싶은 언어 능력
 - 3.5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사항
 - 3.6 재학 중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준 및 커리큘럼 도달도
 4. 맺음말
-

* 일본 교토(京都)에 위치해 있는 ‘同志社大学(Doshisha University)’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일본어의 원발음에 따라 ‘도시사대학’이라고 표기할 수도 있다. 단, 본 대학은 예부터 한국의 대표 시인 윤동주의 출신 학교로도 유명하여 해당 한자의 한국어 음독인 ‘동지사대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대로 ‘동지사대학’으로 부르기로 한다.

** 동지사대학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명칭으로 ‘코리아어(코리아語)’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본고는 2023년 11월 11일 일본 오이타현(大分県)에 있는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立命館大学アジア太平洋大学(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APU)에서 열린 제14회 일본한국어교육학회(日本韓国語教育学会)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읽고 다듬은 것이다.

1.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¹에 일본의 4년제 대학에서 초수외국어(初修外國語)²로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일본 한국어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하고, 내일을 전망하기 위한 기록으로서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조사 연구³의 일환이기도 하다.

일본의 한국어교육은 그 역사가 아주 길다. 또 그 역사만큼이나 양적·질적으로 발전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또한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했으리라 추정되는 일본의 한국어교육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본의 한국어 학습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도 동지사대학 선택필수과목인 「코리아語入門 I(코리아어 입문 I)」 「코리아語インテンシブ I(코리아어 인텐시브 I)」⁴의 수강생 가운데 954명(응답률 75.5%=954/1264*1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구 전체의 초기 분석으로서 먼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만,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인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
- 1 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엄밀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단, 일본의 4년제 대학에서는 2023년도부터 교실 대면 수업을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2023년도 1학기(4월 개강)부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정의한다.
 - 2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외국어 과목은 한 가지만 필수로 이수하면 된다. 즉, 영어든 다른 언어든 하나만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 입시에 비중이 높은 영어만을 이수하는 데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이외의 언어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처음 배우게 되는 외국어, 즉 초수외국어(初修外國語)인 경우가 많다.
 - 3 이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로는 박종후(2014), 박종후·오대환(2015), 박종후·정선영(2019), 朴鍾厚(2020), 朴鍾厚(2021)가 있다.
 - 4 「코리아語入門 I(코리아어 입문 I)」 90분 수업 주 2회, 「코리아語インテンシブ I(코리아어 인텐시브 I)」는 90분 수업 주 3회(그중 1회는 회화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함)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한 4년제 종합대학인 동지사대학의 경우, 시간강사한테 맡겨야 할 과목이 워낙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자나 요일·교시 배정과 상관없이 동일한 교과서로 정해진 진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고자 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응답자의 기본 정보로는 수강 과목 구분과 성별, 소속학부, 출신 지역, 한국 관련 경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성별과 한국 관련 경험 여부는 후속 연구에서 분석의 학습자 변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 특성들은 그동안 실시해 온 일련의 조사 연구(박종후·오대환 2015, 박종후·정선영 2019)에서 이미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전후의 학습자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번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해 준 954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응답자 구성표

		사례 수(명)	비중(%)
[전 체]		954	100.0
수강 과목	한국어 입문I	858	89.9
	한국어 인텐시브	87	9.1
	무응답	9	0.9
성별	남성	415	43.5
	여성	531	55.7
	무응답	8	0.8
소속학부	신학부	3	0.3
	문학부	77	8.1
	사회학부	63	6.6
	법학부	176	18.4
	경제학부	180	18.9
	상학부	141	14.8
	정책학부	53	5.6
	문화정보학부	31	3.2
	이공학부	156	16.4
	스포츠건강과학부	32	3.4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1	0.1
	글로벌지역문화학부	41	4.3
	한국 방문 경험	있음	169
없음		785	82.3
한국어 학습 경험	있음	181	19.0
	없음	773	81.0

한국인과의 교류 경험	간접경험 및 직접경험 모두 없음	673	70.5
	SNS등을 통한 간접 경험은 있음	75	7.9
	대면을 통한 직접 경험은 있음	149	15.6
	간접경험 및 직접경험 모두 있음	57	6.0

위의 표1은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해 준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한 954명의 응답자를 성별로 나눠 보면 남학생은 415명(43.5%), 여학생은 531명(55.7%)이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사 대상의 여학생 비율이 과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에 따른 편향성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객관적인 평균치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표2. 한국 관련 경험자의 비율

		2014년 조사 ⁵	2019년 조사 ⁶	2023년 조사
한국 방문 경험	있음	166명(26.4%)	98명(17.8%)	169명(17.7%)
	없음	463명(73.6%)	454명(82.2%)	785명(82.3%)
한국어 학습 경험	있음	85명(13.5%)	72명(13.0%)	181명(19.0%)
	없음	544명(86.5%)	480명(87.0%)	773명(81.0%)

위의 표2는 한국 관련 경험의 유무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입학 전 한국 방문 경험과 관련해서는, 유경험자가 169명(17.7%), 무경험자가 785명(82.3%)이었다. 한국 방문 유경험자는 2014년 26.4%였던 것에 비하면 감소했지만 2019년 조사에서 17.8%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습 경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유경험자는 181명(19.0%), 무경험자는 773명(81.0%)이었다. 한국어 학습 유경험자는 2014년 13.5%, 2019년 13.0%였던 것에 비하면 약 6%포인트 증가했다. 전체적인 추세를 볼 때 예전에 비해 대학 입학 전에 한국을 방문해 본 학생은 줄어든 반면, 미리 한국어를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인과의 교류 경험과 관련해서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모두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명(6.0%), 대면을 통한 직접 경험만 있다는 학생이 149명(15.6%), SNS를 통한 간접

5 박종후·오대환(2015:197)

6 박종후·정선영(2019:124)

경험만 있다는 학생이 75명(7.9%),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 모두 없는 학생이 673명(70.5%)이었다. 참고로 이전 조사에서는 이번과 같이 상세 분류를 하지는 않고 경험이 있는지만을 질문했는데, 교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4년에 52.6%, 2019년에 35.3%여서 조사를 진행해 갈수록 매년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박종후·오대환 2015:197, 박종후·정선영 2019:124).

이와 같은 성별 구성과 한국 관련 경험의 유무에 따른 결과 분석은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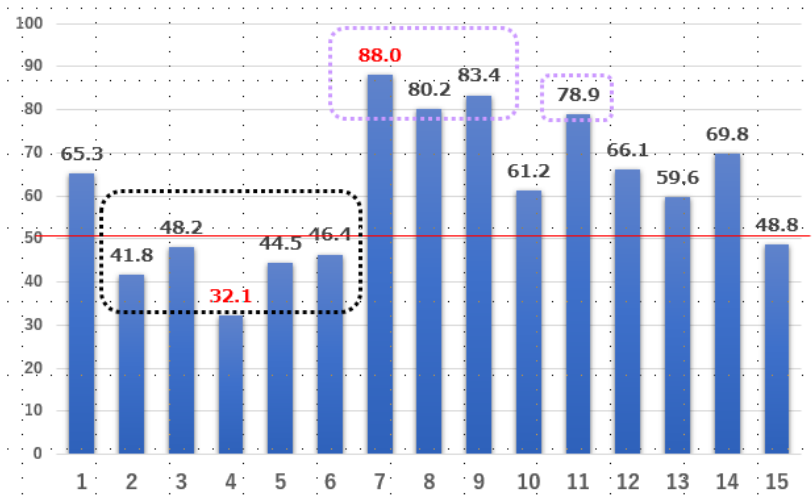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의 항목으로는, 앞서 언급한 응답자의 기본 정보 외에 크게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과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으로 나누어 물어봤다⁷. 그 가운데 본고에서는 전자인 한국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후자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은 추후 다른 지면을 빌려 제시하도록 한다. 참고로, 조사 항목 가운데 5단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조사한 내용은 그 결과를 알아보기 쉽게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한다.

3.1 수강 동기

수강동기에 대한 설문항목은 生越(2003)의 내용을 토대로 박종후(2014), 박종후·오대환(2015) 등의 기존 연구와 비교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과 그 결과는 그림1의 그래프와 같다.

7 각 설문 항목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하였으나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임의적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한다. 부록에 제시한 설문지 역시 원문은 일본어였으나 지면 관계상 한국어 번역본만 게재하도록 한다.

그림1. 수강 동기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65.3] 2. 학점을 받기 쉽기 때문에 [41.8] 3. 달리 수강하고 싶은 외국어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48.2] 4. 주변의 권유 때문에 [32.1] 5. 취업 활동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44.5] 6. 한국에 유학 가고 싶기 때문에 [46.4] 7. 한국에 여행가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88.0] 8. 이웃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80.2] 9. 한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83.4] 10. 한국어는 일본어모어화자에게 배우기 쉬워 금방 잘할 수 있기 때문에 [61.2] 11. 한국인과 한국어로 말하고 싶기 때문에 [78.9] 12.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야기하는 한국어를 알아듣고 싶기 때문에 [66.1] 13. K-POP을 한국어로 잘 부르고 싶기 때문에 [59.6] 14.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기 때문에 [69.8] 15. 소설이나 수필 등 한국 문학을 원서로 읽고 싶기 때문에 [48.8]

(0 : 전혀 그렇지 않다, 25: 그렇지 않다, 50 : 보통, 75: 그렇다, 100 : 아주 그렇다)

수강 동기를 묻는 항목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7번의 “한국에 여행을 가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로 88.0점이었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4번의 “주변의 권유 때문에”로 32.1점이었다. 1번의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도 65.3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2번(41.8점)과 같이 학점과 관련시키거나 3번(48.2점)과 같이 다른 외국어와 관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낮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또 유학(6번: 46.4점)이나 취업(5번: 44.4점)과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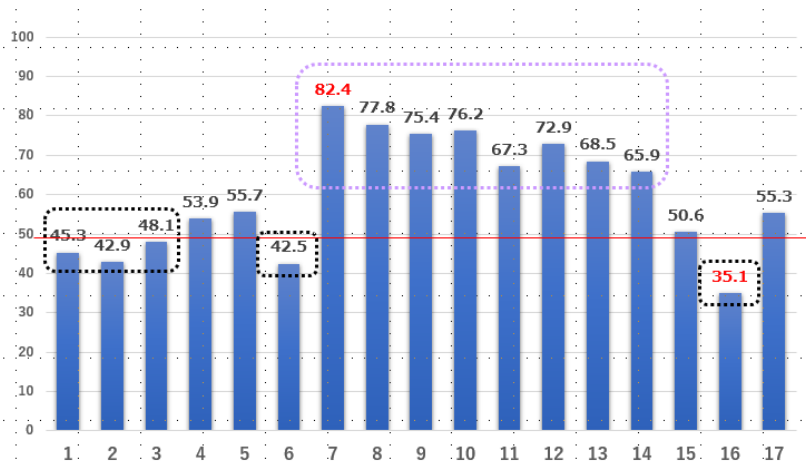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초수외국어 수업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강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과목의 경우 자발적으로/주체적으로 과목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점이나 유학, 취업에 도움이 되리라는 실리적/실용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추천에 의한 비자발적인 동기보다는 개인적인 관심과 취미, 여행 등과 관련하여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 조사 때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다.

3.2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정치, 경제, 역사적 측면보다는 대중문화와 관련한 분야에 관심도가 높았다.

그림2. 분야별 관심도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 정치	45.3	2. 경제	42.9	3. 역사	48.1	4. 사회문제	53.9	5. 전통 문화	55.7
6. 문학	42.5	7. 음식	82.4	8. 한국어	77.8	9. 한국인	75.4	10. 패션	76.2
11. 화장품	67.3	12. K-POP	72.9	13. 드라마	68.5	14. 영화	65.9	15. 예능 방송	50.6
16. 웹툰	35.1	17. 유튜브	55.3						

(0 : 전혀 그렇지 않다, 25 : 그렇지 않다, 50 : 보통, 75 : 그렇다, 100 : 아주 그렇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인 분야는 7번의 ‘음식’으로 82.4점이었는데, 이는 2013년 조사 이래 매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음식 문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역시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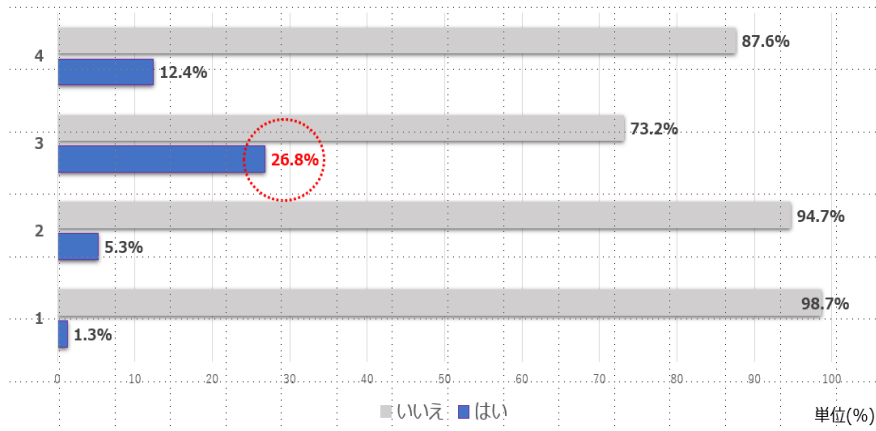
사회에 오랜 세월 뿌리내려 온 재일코리아의 역사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한국 문학이나 웹툰에 대한 일본 내 인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예상보다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성별 등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여 좀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3 한국 유학에 대한 희망 여부

초수외국어로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3.1절에서 학생들의 수강 동기를 묻는 설문 결과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수강 동기에 대한 설문 항목들 중 6번의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기 때문에”에 대한 응답은 46.4점으로 ‘보통’ 이하였다.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 3의 그래프를 보기 바란다.

그림3. 한국 유학에 대한 희망 여부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① 재학 중 한국에 1학기 이상 유학(교환학생 등)을 가고 싶은가? ② 재학 중에 한국에 3주간 정도 유학을 가고 싶은가? ③ 재학 중에 휴학하고 동지사대학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것으로 한국에 유학을 갈 생각이 있는가? ④ 졸업 후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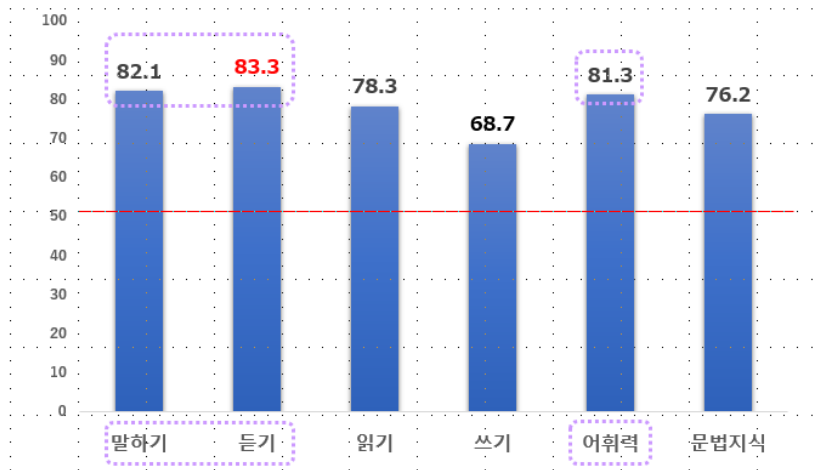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학교에서 주관하는 3주 정도의 단기 어학연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26.8%로 1/4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 1학기 이상의 교환학생은 12.4%,

휴학 후 사비 유학은 5.3%, 졸업 후 한국 대학원 진학은 1.3%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아닌 초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특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한국어 또는 한국학 전공자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4 향상시키고 싶은 언어 능력

수업을 통해 향상시키고 싶은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5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 한국어 능력 향상에 대한 의욕을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그림 4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4. 수업을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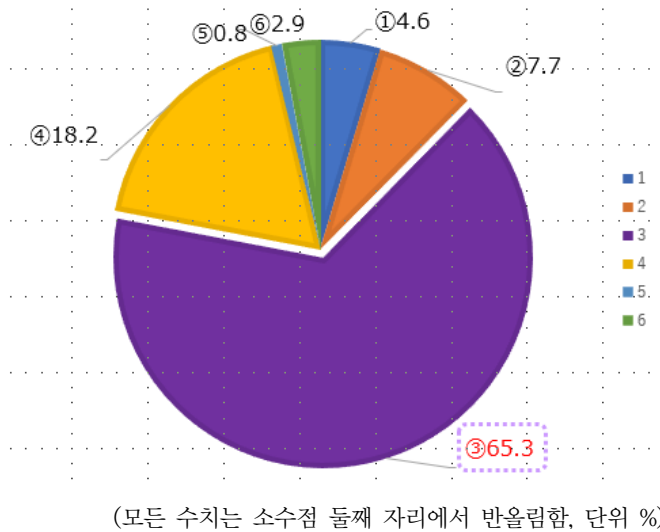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듣기 능력으로 83.3점이었다. 그 다음으로 말하기 능력이 82.1점, 어휘력이 81.3점이었다. 읽기 능력은 78.3점, 문법 지식이 76.2점이었으며, 쓰기 능력이 68.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 역시 전체적으로 전공 과목이 아닌 초수외국어로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듣기 능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현재 일본 사회에서 한국의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이 유행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3.5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사항

한국어 교재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도, 전공 과목이 아닌 초수의 국어로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이는 3.1절에서 살펴본 수강 동기와의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5. 한국어 교재에서 중시해야 하는 사항



①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한글검정시험과 같은 자격 시험의 준비 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세한 문법 설명 및 연습문제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 능력 ④ 유창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연습 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중심의 활동 ⑥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설명

위의 그림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 능력이 65.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유창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연습이 18.2%,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법 설명과 연습 문제가 7.7%,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나 한글능력검정시험(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등 자격 시험 준비가 4.6%였다. 현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나 사회, 문화에 대한 설명은 2.9%에 지나지 않았다.

3.1절에서 수강 동기를 묻는 항목 가운데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이 7번의 “한국에 여행을 가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88.0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어 교과서에 대해서

도 비슷한 내용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3.6 재학 중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준 및 커리큘럼 도달도

재학 중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준 및 도달도와, 본래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한국어 수준 및 도달도에 대한 응답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재학 중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준 및 커리큘럼 도달도

한국어 수준	①본인의 목표 수준	②커리큘럼 도달도	①과 ②의 차이
①초급1(TOPIK1, 한글검정 ⁸)	27.1%	19.3%	▼9.6%p
②초급2(TOPIK2, 한글검정4)	19.6%	17.8%	
③중급1(TOPIK3, 한글검정3)	36.4%	40.8%	△8.0%p
④중급2(TOPIK4, 한글검정준2)	10.2%	13.8%	
⑤고급(TOPIK5·한글검정2이상)	4.5%	5.5%	△1.0%p
⑥무응답	2.2%	2.8%	△0.6%p

(모든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본인이 목표로 하는 한국어 수준은 초급(1+2)이 46.7%였고, 중급(1+2)이 46.6%로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한편,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준, 즉 도달도는 초급(37.1%)보다 중급(54.6%)이 14.5퍼센트 포인트 더 높았다. 이에 대해서는 박중후(2014)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바 있는데, 이 역시 전공 과목이 아닌 초수외국어로서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8 여기서 말하는 ‘한글검정’이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한글능력검정시험)을 가리킨다. 이 시험은 모두 6등급(5급→4급→3급→준2급→2급→1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급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1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도 봄학기 동지사대학의 초수외국어로서 한국어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조사 결과를 기술하는 데 그쳤지만, 추후 다양한 변인을 가지고 추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일본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좀 더 정확히 밝히도록 하겠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연구와도 비교 분석하여 코로나 전후의 일본 한국어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Park, Jong-hoo (2014).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non-major in Japanese Universities. *The language and Culture*, 10(3), 119-139.
- Park, Jong-hoo·Oh, Dae-whan (2015). The Learning Motivation of Non-Majored Korean Learners in Japanese Universities: Analysis considering the variables of experience related to Korea. *The language and Culture*, 11(2), 193-219.
- Park, Jong-hoo·Jung Sun-young (2019). A study of the current and longitudinal motivation of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for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who do not major in Korea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55, 119-156.
- 朝鮮語教育学会 (2020).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実情調査中間報告書.
- 朝鮮語教育学会 (2022).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実情調査最終報告書.
- 朴鍾厚 (2020). 日本の大学の非専攻韓国語学習者の韓国に対する関心度. *マテシス・ユニヴェルサリス*, 21(2), 135-168.
- 朴鍾厚 (2021). 日本の大学における非専攻韓国語学習者の向上させたい言語能力に関する調査分析. *新世紀人文学論究*, 227-242.

【부록】 설문조사 한국어 번역본(번역자: 박종후)

이 설문조사는 일본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 이외의 곳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기본 정보】

1.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은? ① 한국어 입문I ② 한국어 인텐시브II
2.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③ 대답하고 싶지 않음
3. 소속학부 :

1. 신학부(神学部) 2. 문학부(文学部) 3. 사회학부(社会学部) 4. 법학부(法学部) 5. 경제학부(経済学部) 6. 상학부(商学部) 7. 정책학부(政策学部) 8. 문화정보학부(文化情報学部) 9. 이공학부(理工学部) 10. 생명의학부(生命医科学部) 11. 스포츠건강과학부(スポーツ健康科学部) 12. 심리학부(心理学部) 13.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グローバ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部) 14. 글로벌 지역문화학부(グローバル地域文化学部) 15. 국제교육인스티튜트(ILA)

4. 학생 ID: _____
5. 입학 전에 살았던 곳 : _____ 도(道)·도(都)·부(府)·현(県)

1. 홋카이도 2. 아오모리현 3. 이와테현 4. 미야기현 5. 아키타현 6. 야마가타현 7. 후쿠시마현 8. 이바라키현 9. 도치기현 10. 군마현 11. 사이타마현 12. 지바현 13. 도쿄도 14. 가나가와현 15. 니가타현 16. 도야마현 17. 이시카와현 18. 후쿠이현 19. 야마나시현 20. 나가노현 21. 기후현 22. 시즈오카현 23. 아이치현 24. 미에현 25. 시가현 26. 교토부 27. 오사카부 28. 효고현 29. 나라현 30. 와카야마현 31. 돗토리현 32. 시마네현 33. 오카야마현 34. 히로시마현 35. 야마구치현 36. 도쿠시마현 37. 가가와현 38. 에히메현 39. 고치현 40. 후쿠오카현 41. 사가현 42. 나가사키현 43. 구마모토현 44. 오이타현 45. 미야자키현 46. 가고시마현 47. 오키나와현 48. 기타

6. 입학 전 한국 방문(여행 포함) 경험의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7. 입학 전 한국어 학습(독학 포함) 경험의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8. 입학 전 한국인과의 교류 경험 유무입학 전 한국어 학습 경험의 유무
 - ① SNS 등을 통한 간접 경험은 있음
 - ② 대면을 통한 직접 경험은 있음
 - ③ 간접경험 및 직접경험 모두 있음
 - ④ 간접경험 및 직접경험 모두 없음

【수강 동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아주 그렇다
1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1	2	3	4	5
2	학점을 따기 쉬워서	1	2	3	4	5

3	수강하고 싶은 다른 외국어 과목이 없어서	1	2	3	4	5
4	주변의 권유 때문에	1	2	3	4	5
5	취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1	2	3	4	5
6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어서	1	2	3	4	5
7	한국 여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1	2	3	4	5
8	이웃 나라 언어이기 때문에	1	2	3	4	5
9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1	2	3	4	5
10	한국어는 일본어 화자가 금방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	2	3	4	5
11	한국인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1	2	3	4	5
12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는 한국어를 알아듣고 싶어서	1	2	3	4	5
13	케이팝을 한국어로 부르고 싶어서	1	2	3	4	5
14	한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1	2	3	4	5
15	소설이나 에세이 등 한국 문학을 원문으로 읽고 싶어서	1	2	3	4	5

【관심 분야】

		전혀 무관심		보통		아주 관심
1	정치	1	2	3	4	5
2	경제	1	2	3	4	5
3	역사	1	2	3	4	5
4	사회문제	1	2	3	4	5
5	전통 문화	1	2	3	4	5
6	문학	1	2	3	4	5
7	음식	1	2	3	4	5
8	한국어	1	2	3	4	5
9	한국인	1	2	3	4	5
10	패션	1	2	3	4	5
11	화장품	1	2	3	4	5
12	케이팝	1	2	3	4	5
13	드라마	1	2	3	4	5
14	영화	1	2	3	4	5
15	예능 프로그램	1	2	3	4	5
16	웹툰	1	2	3	4	5
17	유튜브 채널	1	2	3	4	5

【유학 희망 여부】

1. 재학 중 한국에 1학기 이상 유학(파견 유학 등)을 가고 싶은가? ① 네 ② 아니요
2. 재학 중에 한국에 3주간 정도 유학을 가고 싶은가? ① 네 ② 아니요
3. 재학 중에 휴학하고 동지사대학 정규 프로그램 이외의 것으로 한국에 유학을 갈 생각이 있는가?
① 네 ② 아니요

4. 졸업 후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하는가? ① 네 ② 아니요

【향상시키고 싶은 언어 능력】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아주 그렇다
1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1	2	3	4	5
2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1	2	3	4	5
3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1	2	3	4	5
4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1	2	3	4	5
5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1	2	3	4	5
6	문법 지식을 향상시키고 싶다	1	2	3	4	5

【교과서 및 교과 과정】

1. 한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①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한글검정시험과 같은 자격 시험의 준비
- 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자세한 문법 설명 및 연습문제
-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회화 능력
- ④ 유창성을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연습
- ⑤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 중심의 활동
- ⑥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설명

2. 당신이 재학 중에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어의 수준은?

- ① 초급I : 한국어능력시험 1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5급
- ② 초급II : 한국어능력시험 2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4급
- ③ 중급I : 한국어능력시험 3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4급
- ④ 중급II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준2급
- ⑤ 고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3. 대학에서 목표로 해야 하는 한국어의 수준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 ① 초급I : 한국어능력시험 1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5급
- ② 초급II : 한국어능력시험 2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4급
- ③ 중급I : 한국어능력시험 3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4급
- ④ 중급II :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준2급
- ⑤ 고급 :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대학에서 초수외국어(初修外國語)로서의 한국어 과목 수강생의 현주소

박종후

일본 동지사대학 글로벌지역문화학과 부교수

아사바 유키

일본 동지사대학 글로벌지역문화학과 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본의 4년제 대학에서 초수외국어(初修外國語)로서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2023년도 일본의 동지사대학 한국어 수강생 9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율은 75.5%이었다.

결론 그 결과, 취업이나 유학 등의 실리적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관심과 취미와 관련하여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한국 음식이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수업을 통해서는 특히 청해 능력, 회화 능력,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싶어 했다. 재학 중에 도달하고자 하는 한국어 수준은 중급1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고, 한국어 교재는 일상 회화를 중심으로 집필되어야 한다는 학생이 많았다.

핵심어 일본의 한국어교육, 대학 내 초수외국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강 동기, 한국의 각 분야에 대한 관심

이 논문은 2023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